

# 4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5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 국어 영역

[1 ~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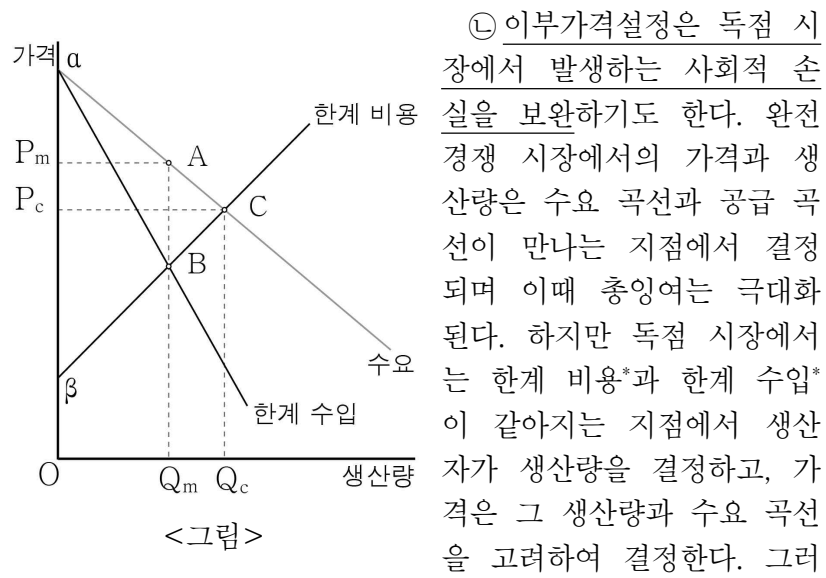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

# 국어 영역

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부가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때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sub>m</sub>이 되고 가격은 P<sub>m</sub>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sub>m</sub>AQ<sub>m</sub>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βP<sub>m</sub>AB,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sub>m</sub>aA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부가가격 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sub>m</sub>에서 Q<sub>c</sub>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만큼 늘어나게 된다.

\*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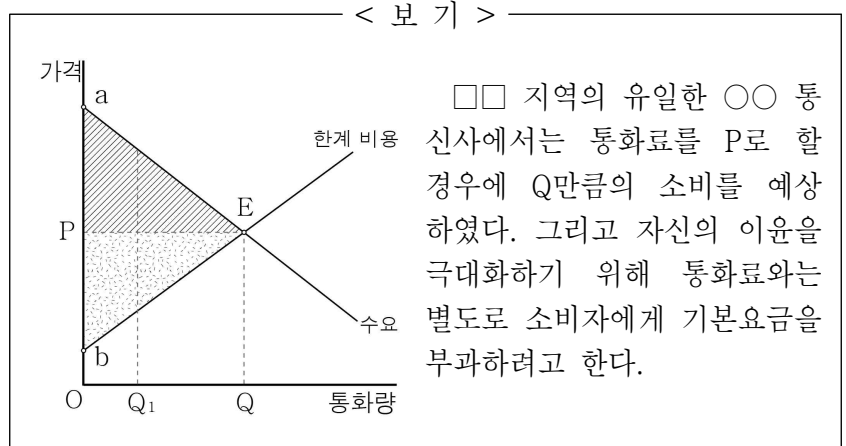
## 1.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이 부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 ③ 이 부가가격 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 ⑤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 2.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지역의 유일한 △△ 골프장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은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징수한다.
- ② 한시적인 기간 동안 ▽▽ 마트에서는 한 개에 800원 짜리 라면을 다섯 개 사면 3,800원에, 열 개 사면 7,400원에 판매한다.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 패스트푸드점은 3,000원 짜리 햄버거와 1,000원 짜리 콜라를 함께 묶어 3,500원에 판매한다.
- ④ 어느 지역의 유일한 ○○ 철도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상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 ⑤ 어느 지역의 유일한 ◇◇ 수도사업소는 수도물 사용량 100톤을 기준으로 추가 소비에 대하여 생산 원가만을 부과한다.

##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할 것이다.
- ② ○○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sub>1</sub>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에 해당할 것이다.

## 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량이 늘어나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겠군.
- ②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③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생산자의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겠군.
- ④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구입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겠군.
- ⑤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5.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감정하면                      ② 배정하면                      ③ 시정하면
- ④ 책정하면                      ⑤ 제정하면

# 국어 영역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느다  
 최령(最靈)흔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느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흐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귄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깃흔 골짜기에 알이 있어 츠즈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야 내 어딤 읊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 최령흔 오인: 가장 신령스런 우리.
- \* 직립불의: 곳곳이 섬.
- \* 고모진태: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 탁연직립: 뻗어나 곧게 섬.
- \* 왕기순인: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나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딱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웃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는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흠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찾종 하나, 슬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운(德潤)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위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혜보각사의 「서장(書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 있다. 「서장(書狀)」은 위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체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막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직업적이어서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태준, 「고완」 -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 사란: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 도일: 세월을 보냄.
-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 국어 영역

7.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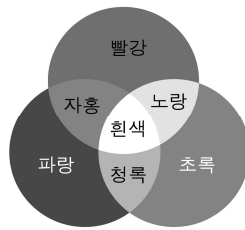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8.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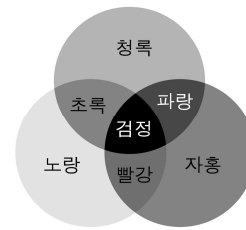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찾중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9 ~ 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다양한 색을 통해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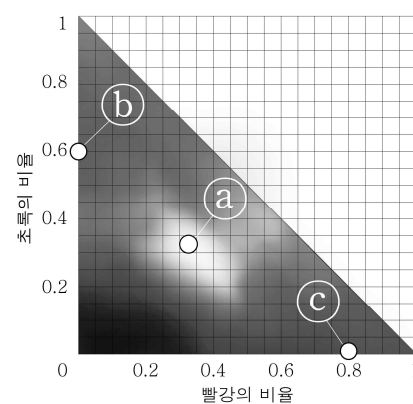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780nm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00~700nm대의 빨강(R), 500~600nm대의 초록(G), 400~500nm대의 파랑(B)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색광의 3원색이라고 한다. <그림 1>처럼 색광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색광의 3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 한다.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한편 자홍, 청록, 노랑은 색료의 3원색이 되는데, <그림 2>처럼 색료의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만들어진다.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을 '감법 혼합'이라고 한다.

가법 혼합의 원리는 스크린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백색광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흰 스크린의 한 지점을 동시에 비추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대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은 흰색이 되고, 두 색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S(색) = rR + gG + b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은 빨강 필터를 단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량을 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빨강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r, g, b의 합은 1이 되며, r, g, b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가법 혼합의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림 3>과 같은 색 삼각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색 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세로축은 초록의 비율을 나타낸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 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 내는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그림 3>

나타낸다. 파랑의 비율은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의 합을 빼면 되므로 빨강과 초록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 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 내는 혼합 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 색은 두 색의 좌표를

# 국어 영역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 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또 색 삼각형을 보면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혼합 색의 좌표가 색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㉔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또 색 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서 출발하여 ㉔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의 보색이 된다.

감법 혼합의 원리는 한 개의 프로젝터에서 백색광을 자홍, 청록, 노랑의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켜 흰 스크린에 닿게 하는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색광에서 필터의 색에 따라 특정 부분의 파장은 필터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과된다. 색료의 3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한다. 자홍 필터는 초록, 청록 필터는 빨강, 노랑 필터는 파랑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투과시키는 것이다. 이때 투과율이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법 혼합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 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이게 된다. 화가가 빨강과 파랑 물감을 섞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빨강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파랑과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은 흡수되고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랑 물감의 입자가 흡수한다. 파랑 물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랑 물감의 입자들은 서로가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 안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이처럼 감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태양 빛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사용했다. 모네는 그의 대표작인 ㉕ <인상:해돋이>에서 물감을 섞어 만든 다양한 색으로 아침 안개 속의 태양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화폭에 담으려 하였다. 그런데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감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㉖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서 가법 혼합되어 제3의 색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시냐크는 그의 대표작인 ㉗ <우물가의 여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히 많은 원색 점들을 찍어 병치함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므로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냐크는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하였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보색이 혼합되어 오히려 흐릿하게 보였다. 이처럼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색에 대한 이들의 탐구 정신은 후대의 화가들이 다양한 회화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영감을 주었다.

\* 명도: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방출하는 광량이 많을수록 높음.

\* 채도: 색의 선명함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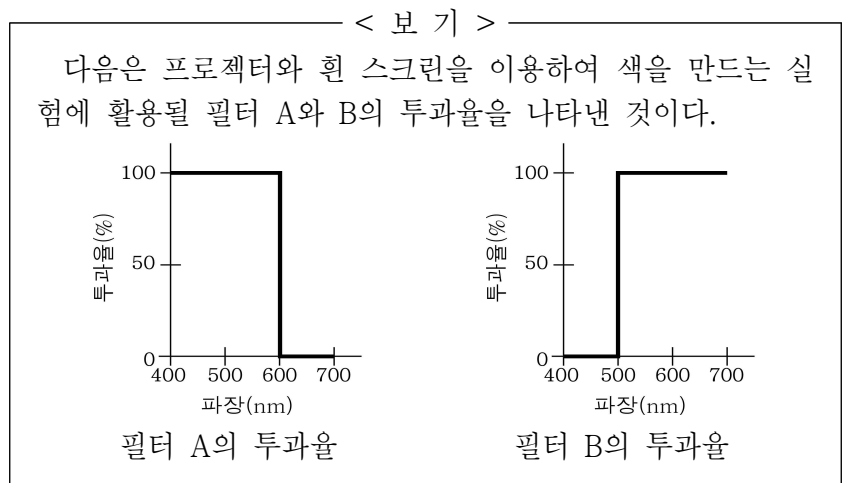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색광과 색료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중시한 회화 유파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은 각각 세 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 ③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 ④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일대일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는 원색인 청록 물감의 색이 지닌 명도보다 낮아진다.
- ⑤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면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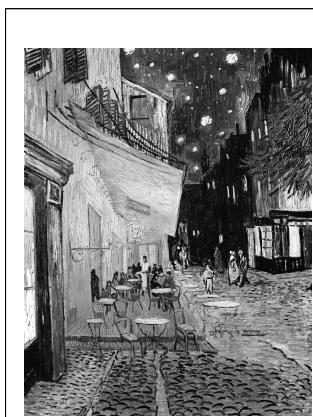
- ①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②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 필터 B에 투과시키면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 ③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킨 후, 자홍 필터에 투과시키면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 ④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는 경우, 두 필터의 배치 순서를 바꾸면 스크린에 나타나는 색이 달라진다.
- 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보다 필터 A의 투과율을 50%로 낮춘 필터를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가 더 낮다.

# 국어 영역

12. 윗글의 <그림 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r, g, b는 ㉠에서 모두 0의 값을 나타낸다.
- ② ㉠과 ㉡를 혼합하면 ㉢보다 채도가 높아진다.
- ③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파랑의 비율이 더 높다.
- ④ ㉢과 ㉠을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색 삼각형으로 그 혼합 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 ⑤ g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 쪽 변과 만나는 지점에는 자홍이 위치한다.

13. 윗글의 ㉡, ㉢와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흐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이는 대상의 순간적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려 했다. 고흐는 이를 위해 물감을 섞어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 원색과 중간색만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인 ㉣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는 이런 그의 화풍이 잘 담겨 있는데,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의 나뭇잎과 자홍빛 테라스의 대비를 통해 그의 눈에 비친 화려한 밤거리의 순간적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 ① ㉡와 ㉢는 모두,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가법 혼합 원리에 의해 채도가 높아 보이겠군.
- ② ㉡와 ㉢는 모두, 원색 점들을 병치하여 물감의 혼합으로 색이 흐릿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겠군.
- ③ ㉡와 ㉢는 모두, 보색 대비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려 했겠군.
- ④ ㉡와 달리, ㉢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겠군.
- ⑤ ㉡와 달리, ㉢는 대상을 그리는 데 사용된 물감의 색과는 다른 제3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겠군.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② ㉡: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
- ③ ㉢: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④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⑤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15 ~ 1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 열쇠를 쫓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셔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너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

# 국어 영역

이었고 그리움이였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에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에 나타나면 다 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㉞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더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㉟ **현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욕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축수를 다시 갈아 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과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과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점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멩텅이로 감혀 있던 종이 멩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1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6.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 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 해설

④①①①④  
 ②⑤③⑤⑤  
 ④⑤③③①  
 ②③

## 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되는 이부가격 설정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 잉여라 한다. ② 소비자에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③ 이부가격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2.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골프장 입회비를 낸 후에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두 차례 가격을 치르는 방식이다.

**[오답풀이]** ② 수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③ 두 상품을 묶어 파는 방식이다. ④ 소비자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 3.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그래프에 적용한다.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PbE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통신사는 소비자가 이용한 통화료에 기본요금을 부과할 것이므로 P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③ Q1에서는 P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형성된다. ④ OP×OQ이므로 사각형 OPEQ에 해당한다. ⑤ 수요 곡선은 수량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므로 가격 P보다 위쪽에 위치한 삼각형 PaE가 소비자 잉여에 해당한다.

## 4. [출제의도] 핵심 논지의 결론을 추론한다.

①은 이부가격설정의 사회적 손실 보완이다. 지문에서 독점 시장의 사회적 손실은, 생산량이 적어 총잉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부가격설정을 통해 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려 총잉여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손실 보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늘어난다. ④ 생산량이 늘어나므로 '생산량이 줄어들어'는 적절하지 않다. ⑤ 소비자의 혜택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으로 흡수되므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 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책정하다'는 '계획이나 정책을 세워 결정함.'이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감정하다'는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감별하여 결정함.'이다. ② '배정하다'는 '몫을 나누어 정함.'이다. ③ '시정하다'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음.'이다. ⑤ '제정하다'는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이다.

## [6~8] (갈래 복합) (가)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나) 이태준, '고완'

#### (가)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이 작품은 가사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태평사', '누항사'를 지은 노계 박인로의 연시조이다. 박인로의 문집인 「노계집」에 실려 있으며, 총 29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바위가 지닌 빼어난 점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위의 품성을 닮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나) 이태준, '고완'

이 작품은 한국적 단편 소설의 한 경지를 이룬 작가로 평가받는 이태준의 수필이다. 그의 문장은 수려하고 고풍스럽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그의 필치는 이 작품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격을 지닌 옛것을 숭상하는 상고주의(尙古主義)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물건에 대한 애착과 존경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의 옛것과는 다른 서양의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생활의 흔적이 담겨 있는 조선 시대의 자기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선인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서적 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의 삶의 흔적을 담아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급하게 이루어진 현대의 물건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들이 횡행하는 현실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 6.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탁연직립'한 바위의 속성을 속세의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속세의 사람들이 '탁연직립'한 속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6수>에서 화자는 '세정(世情)'이 너무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세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의 글쓴이는 우연히 얻은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정독하며 자신의 자취를 남겨 비로소 한 권의 책이 되는 옛날과, 인체의 덕으로 함부로 박아 돌려 순식간에 책을 만들어 소비하는 현재를 대조하며 현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신처럼 옛 것을 좋아하는 고완의 취미를 함부로 대하고,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세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

## 7. [출제의도] 작품을 외재적 증거를 통해 감상한다.

<보기>는 조선 시대 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문인들은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겼는데, 이때의 자연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은일(隱逸)의 선비들에게 자연은 번잡하고 혼탁한 세속과 대비되는 탈속적이고 이상적인 세계였고, 한편으로는 인간과는 사뭇 다른 빼어난 품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여 존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존경은 자연을 벗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제6수>에서는 세정이 수상하다고 하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산 좋고 물 좋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유정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우뚝 서서 높은 특성, 불변하여 더욱 굳은 특성을 인간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며 바위를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제3수>에서는 바위를 '고모진태', 즉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며 벗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탁연직립', 즉 빼어나게 곧게 서 있는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8. [출제의도] 소재에 투영된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한다.

(나)의 '나'는 여러 물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여러 옛 물건에 대한 애정

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외국의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그가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한 것은 그것이 세밀하고 정교해서 작은 금만 생겨도 보기 싫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공예품을 두고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아버지의 '연적'을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대하고 있다. 이는 연적에서 아버님이 손수 주신 교훈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② 글쓴이는 '차종 하나 술병 하나'가 아름다운 색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것들에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글쓴이는 '조선 시대의 공예품'을 두고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하였다. 이는 그것들이 워낙 순박하게 타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⑤ 글쓴이는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여기에 선인들이 정독한 자취가 있으며, 또 오랜 시간 동안 일획 일자를 쓰고 사란을 쳐 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책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9~14] (과학예술) P.U.P.A. Gilbert / W. Haeblerli,

### '가법 색 혼합과 감법 색 혼합'

색을 중시했던 회화 유파인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글은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을 색광의 혼합 방법인 가법 혼합과 색료의 혼합 방법인 감법 혼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색광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가법 혼합할 때 3원색이 모두 섞이면 흰색이 되고, 둘만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된다. 그런데 혼합된 색은 3원색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색료의 3원색인 자홍, 청록, 노랑을 감법 혼합할 때 3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되고, 둘만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된다. 그런데 색료의 3원색을 섞으면 섞지 않을 때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인상주의 화가는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다양한 색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물감을 섞는 것은 감법 혼합이므로 그들이 만든 색은 그리 밝지 않았다. 신인상주의 화가는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과 보색 대비의 효과를 활용하여 밝고 선명하게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은 그리 선명해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혔다.

## 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색광의 혼합 방법인 가법 혼합과 색료의 혼합 방법인 감법 혼합을 구체적인 실험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혼합 방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선명하게 대상을 그리려고 했던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까닭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색을 혼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③ 색광과 색료를 혼합하는 방식을 설명하였지만 색광과 색료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④ 빛의 색을 표현하려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회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이 유파의 회화 방식에 관한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 10. [출제의도] 색의 혼합 원리를 이해한다.

가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 된다는 것은 r, g, b 중 하나가 1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원색으로 색 삼각형에서 꼭짓점에 위치한다. 그런데 세 가지 색을 모두 같은 비율로 섞으면

혼합색이 되므로 색 삼각형은 가운데에 위치한다. 채도는 색 삼각형의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므로 원색은 혼합색보다 채도가 높다.

**[오답풀이]** ① 색광의 3원색의 보색은 자홍, 청록, 노랑인데, 이 세 가지 색은 색료의 3원색이다. ② 색 삼각형에서 자홍은 파랑과 빨강, 청록은 파랑과 초록, 노랑은 초록과 빨강이 각각 1:1의 비율로 섞이는 지점, 즉 변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③ 태양 빛이 빨강 물감에 닿으면 빨강 파장 영역대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처럼,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가시광선 중에서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만 반사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다. ④ 물감을 섞는 것은 감법 혼합으로, 빨강 물감과 청록 물감을 섞어 만든 색은 검정으로 청록 물감의 색보다 명도가 낮다.

**11. [출제의도] 색의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프로젝터의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하면 400~600nm만 투과되고, 그 다음에 위치한 필터 B를 투과하면 500~600nm만 투과되어 스크린에 초록이 나타난다. 또 백색광을 필터 B에 투과하면 500~700nm만 투과되고, 그 다음에 위치한 필터 A를 투과하면 500~600nm만 투과되어 스크린에 초록이 나타난다. 이처럼 두 필터의 배치 순서가 바뀌어도 스크린에 비치는 색은 같다.

**[오답풀이]** ② 필터 A에 백색광을 투과시키면 초록과 파랑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므로 청록, 필터 B에 백색광을 투과시키면 초록과 빨강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므로 노랑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③ 백색광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나오는데, 그 뒤에 초록의 보색인 자홍 필터를 투과시키면 초록 파장을 모두 흡수하여 스크린에는 검정이 나타난다. ⑤ 필터 A의 투과율을 낮출수록 투과하는 빛이 줄어들어 어두워진다. 즉 색의 명도도 낮아지는 것이다.

**12. [출제의도] 색 삼각형을 이해한다.**

색 삼각형에서 g의 비율이 1인 지점은 꼭짓점에 있는 초록의 좌표로 이 좌표에서 ㉔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빨강의 비율이 0.5인 지점에 닿게 된다. 이 지점은 빨강과 파랑이 1:1의 비율로 섞여있는 자홍의 좌표이다.

**[오답풀이]** ① ㉓는 r, g, b가 모두 같은 값인 1/3이다. ② ㉔와 ㉕를 혼합한 색의 좌표는 ㉖보다 ㉔에 가깝다. 따라서 이 지점에 위치한 색의 채도는 ㉖의 채도보다 낮다. ③ ㉖의 파랑 비율은 0.4, ㉔의 파랑 비율은 0.2이다. ④ ㉖와 ㉔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r, g, b의 합은 여전히 1이므로 색 삼각형에서 혼합 색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13. [출제의도] 색의 원리를 예술 작품에 적용한다.**

신인상주의 화가 시냐크는 <우물가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그릴 때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여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였다. 또 고흐가 그린 <아를르의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도 파랑과 노랑, 초록과 자홍의 보색 대비가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① 그림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가법 혼합 원리에 의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② 원색의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 화가는 시냐크이다. ④ ㉔는 모네가 태양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해 그린 작품이다. ⑤ 모네가 ㉔를 그릴 때에는 색을 병치하여 혼합하는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쓰였다.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단어로는 '제한'이 있다.

**[15~17] (현대 소설) 최윤, '회색 눈사람'**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던 시절의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개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강하원'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강하원'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고 자신의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 시절'의 경험은 '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시절'의 '나'는 도서관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우연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던 '안'을 만나게 되고, '안'의 제안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책을 비밀리에 인쇄해 발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일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나'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비밀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가 조직이 발각되어 책을 발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나'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인 '나'가 회상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 고백체로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 일을 겪으며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가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다.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지 않고 있다. 서술자는 '나'로 유지되고 있다.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고 있지 않다.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이다. '나'가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⑤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의 작품이다. 즉 액자 구조인데, 외부 액자는 '나'가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지문은 내부 액자에 해당하는데, 외부 액자와 내부 액자의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16.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게 타자는 '안'이다.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주체로 살아간다. '나'는 저녁 무렵 인쇄소로 '책자'를 인쇄하기 위한 일을 하러 갔다가 비밀리에 '책자'를 인쇄하는 일이 발각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급히 도망을 친다. '적색등'은 도망치는 길에 건널목에서 '나'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때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밀고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가 건널목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널목에서 있을 때인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울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 등을 보고 비밀리에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치고 있다. 이를 통해 '울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 등이 '나'를 억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의 폭력적인 속성을 보여 준다. ③ '나'는 '그들'과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집을 나섰으며, 발각되어 '책자' 발간을 위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우리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는 '나'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욕망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욕망하기에 '나'는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

를 해맸'던 것이다.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 함께 '책자'를 발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나'가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안'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지닌 인물로 '책자'를 비밀리에 발간하려는 강한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은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발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이러한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이는 '나'가 '안'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안'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한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인물의 처지와 심리·태도를 이해한다.**

'나'는 '신문'에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한다. '신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렇다고 '나'가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나'는 '신문'이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을 통해 '열쇠'에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 때문에 '나'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심정과 관련해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④ '나'는 '안'이 나타나기를,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나'에게 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다. '병이 없는 신열'은 '나'가 그러한 고통을 겪었음을 나타낸다. ⑤ '나'는 자신의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하자 매우 아파한다. 그리고 거리를 헤매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절망한다. 그러다가 '나'는 '헌책방'을 떠올리고 '헌책방'에 '그들'이 남긴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헌책방'에 간다. '헌책방'은 '나'에게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인 것이다.